

96. 5. 14

영화모방 25차례나 강도·성폭행

이식

○...서울 성동경

찰서는 13일 미국

범죄영화를 모방해

강도짓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온
혐의(특수강도 등)로 임상국(24·
무직)씨를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
1일 오후 1시께 동대문구 회기동
○커피숍에서 종업원 김아무개(24·
여)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
고 7만원을 빼앗는 등 4월 중순부
터 커피숍과 비디오방을 돌며 25
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 등을
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
말부터 비디오방을 전전하며 주인
공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다 숨
지는 미국 영화 <칼리포니아> 등
을 보고 범죄를 구상한 것으로 드
러났다. 임씨는 자신의 범죄를 모
두 일기장에 기록해놓은 것으로
수사 결과 나타났다.

임씨는 경찰에서 "주인공이 범
죄를 저지르다 바다에 빠져 죽는
영화 대본을 쓰기 위해 범행 내용
을 기록해 왔다"며 "나도 언젠가
는 대본처럼 멋지게 자살할 생각
이었다"고 말했다. 안영춘 기자